

# 중고령층 노동이동과 자영업 소득\*

손연정\*\*

## 1. 서론

우리나라는 IMF 경제위기 이후 구조조정으로 실직한 임금근로자가 대거 자영업으로 진출하면서 자영업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후 두 차례의 자영업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2006년 이후 자영업자 수는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2011년 이후 베이비붐 세대 퇴직자를 중심으로 50세 이상 근로자들의 자영업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자영업자 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평균 퇴직연령은 2016년 기준 49.1세로(최석현·김재신, 2018), 국민연금 수령개시까지 소득공백기간이 발생하게 되어 50대에서 퇴직 이후 재취업이 어려운 많은 임금근로자들이 가교일자리로 자영업을 선택하고 있다(성지미·안주엽, 2004). 이러한 자영업의 증가추세는 향후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 본격화되면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자영업자 수가 증가하면 동일업종 내 경쟁이 심화되고, 자영업 경영 여건과 수익성이 악화되어 영세자영업자의 생계가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상당수는 영세한 저소득층으로 빈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반정호, 2012). 특히 50대 이상의 자영업 진출자의 경우 학력수준이 낮고 사업체 규모가 작으며 생산성 및 수익성이 낮은 운수업, 도소매업 등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소득이 정체되거나 하락할 위험이 더욱 큰 것으로 보인다(지은정, 2012).

하지만 지금까지 자영업에 대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자영업 진입과 퇴출요인 분석에 집중되어 있으며, 자영업자의 소득과 생활수준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데 도움이 되는 실증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이 글은 중고령층 자영업자의 개인 및 가구 소득과 가계지출 실태를

\* 이 글은 이승렬·손연정(2018), 『중고령 자영업자 연구』 제3장의 일부를 발췌·정리한 것이다.

\*\*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skysyj@kli.re.kr)

분석하고 자영업자의 경제상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자 작성되었다.

## II. 중고령층의 노동시장 이동

본격적으로 중고령층 자영업자의 가구소득 및 생활 수준에 대해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중고령층의 노동시장 이동과정을 동태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과거에는 종신 고용형태가 일반적이었으므로 중고령층의 경제활동상태 변화는 취업상태에서 퇴직으로 분절적인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에 무리가 없었다. 하지만 IMF 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증대되고 조기퇴직이 증가함에 따라 중고령층의 고용상태 변화가 다양화되고 점진적인 퇴직 현상이 증가하고 있어 중고령층의 종사상 지위와 고용형태의 변화과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그 변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 1. 분석자료 및 분석표본의 특성

중고령자의 노동이동을 살펴보기 위하여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1~19차년도(1998~2016년) 자료의 결합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인 중고령층은 45세 이상 65세 이하로 정의하였으며, 이 글에서 사용한 주요 분석방법인 집단중심추세모형 추정을 위하여 15회 이상 패널자료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1,334명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분석표본의 인구특성별 종사상 지위 분포를 먼저 살펴보면, 남성 중고령자의 경우 임금근로자인 상용직 근로자와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각각 33.2%와 16.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용주·자영업자가 36.3%, 비취업자가 14.2%로 나타났다. 한편 여성 중고령자는 상용직 근로자와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각각 21.1%, 15.4%로 나타났으며, 고용주·자영업자가 18.1%, 비취업자가 45.4%로 나타났다. 출생코호트별로 경제활동상태를 살펴보면, 연령층이 높은 1940년대생 코호트가 1950년대생 코호트에 비해 임금근로자 비중이 낮고 고용주·자영업자와 비취업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상용직 비중이 높고 임시·일용직 및 비취업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주·자영업자는 2~3년제 대학 졸업자가 30.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졸 이하 집단이 27.4%로 그 뒤를 잇고 있다.

〈표 1〉 중고령자의 인적 특성별 종사상 지위 분포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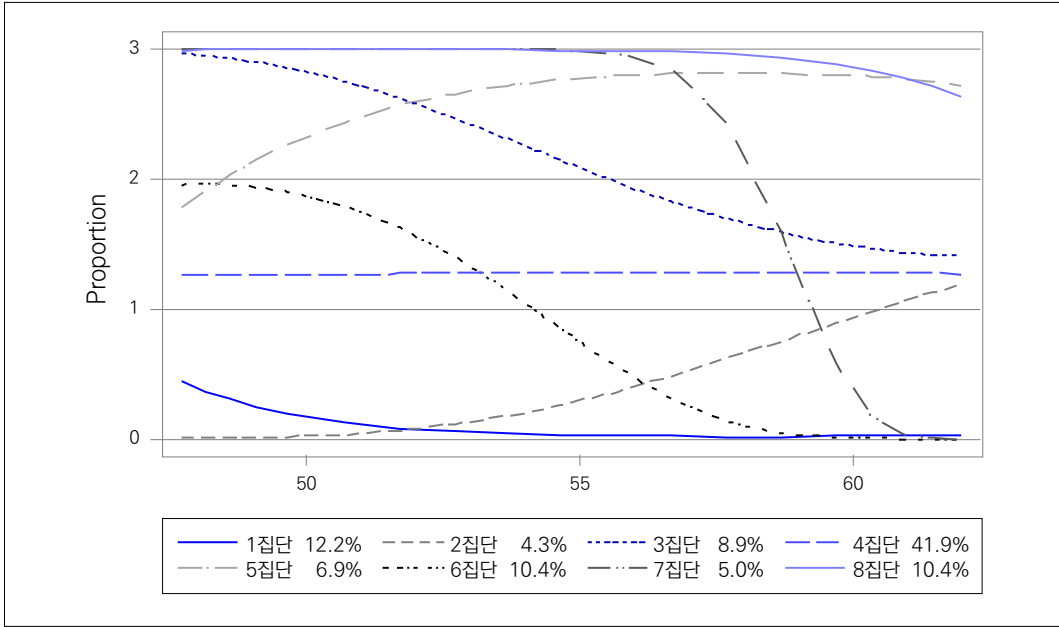
		종사상 지위				
		상용직	임시·일용직	고용주·자영업자	비취업	전체
성별	남성	3,761 (33.2)	1,857 (16.4)	4,111 (36.3)	1,608 (14.2)	11,337 (100.0)
	여성	1,990 (21.1)	1,451 (15.4)	1,706 (18.1)	4,272 (45.4)	9,419 (100.0)
출생 코호트별	1940년대	1,067 (24.9)	595 (13.9)	1,328 (31.0)	1,291 (30.2)	4,281 (100.0)
	1950년대	4,684 (28.4)	2,713 (16.5)	4,489 (27.3)	4,589 (27.9)	16,475 (100.0)
교육 수준별	고졸 이하	2,545 (21.5)	2,314 (19.6)	3,244 (27.4)	3,731 (31.5)	11,834 (100.0)
	2~3년제 대학	1,978 (31.5)	819 (13.0)	1,901 (30.3)	1,586 (25.2)	6,284 (100.0)
	4년제 대학	1,228 (46.6)	175 (6.6)	672 (25.5)	563 (21.3)	2,638 (100.0)
전 체		5,751 (27.7)	3,308 (15.9)	5,817 (28.0)	5,880 (28.3)	20,756 (100.0)

## 2. 중고령층 노동시장 이동유형 분석

이 글에서는 집단중심추세모형(Group-based trajectory analysis)을 사용하여 중고령자의 노동시장 이행과정을 유형화하고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집단중심추세분석은 개인의 노동생애와 과정을 총체적으로 분석하는 방법 중 하나로, 매년 반복적으로 측정된 종단자료를 이용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동태적인 상태변화 과정을 유형화하는 데 유용한 분석방법이다(김재희, 2017). 이 분석은 모집단이 시간의 흐름에 의해 변화되는 추세적 특징에 따라 구분되는 집단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여 최적의 궤적함수를 추정하고 집단 수를 결정하게 된다(Nagin, 1999). 집단중심추세모형은 각 집단이 나타내는 궤적의 형태를 직접 추정할 수 있으며 데이터에 적합한 궤적의 형태 및 집단 수에 대한 통계적 가설검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용한 분석방법이다.

[그림 1]은 집단중심추세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8개 집단으로 구분된 중고령층의 노동이동 유형별 구체적인 노동시장 이동 궤적을 제시하고 있다. 세로축은 종속변수인 고용형태

[그림 1] 중고령자의 노동시장 이동 궤적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1~19차 조사 원자료.

를 나타내며 1은 비취업을, 2는 고용주·자영업자, 3은 임시일용직, 4는 상용직을 의미한다.

각 유형별 노동시장 이동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체 분석대상자의 12.2%가 속하는 1집단은 분석기간 동안 대부분 비취업상태를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동시장 이탈형’이라고 명명하였다. 2집단(4.3%)은 비취업상태를 지속하다 노년기에 자영업으로 진입하는 모습을 보여 ‘후기자영업진입형’으로 명명하였다. 3집단은 8.9%의 중고령자가 속한 집단으로 상용직 임금근로자로 있다가 후기에 자영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영업전환형’이라고 명명하였다. 4집단은 41.9%의 중고령자가 속한 집단으로 분석기간 동안 자영업 상태를 지속하는 경로를 보이고 있어 ‘지속자영업자형’이라고 명명하였다. 5집단은 6.9%의 중고령자가 속한 집단으로 분석기간 초기에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로 종사하였다가 상용직으로 전환된 경로를 보여주어 ‘상용전환형’이라고 명명하였다. 6집단은 10.4%의 중고령자가 속한 집단으로 임시·일용직 상태였다가 분석기간 후반에 비취업 상태로 전환된 형태로 나타나 ‘임시일용퇴직형’이라고 명명하였다. 7집단은 5.0%의 중고령자가 속한 집단으로 상용직 상태에 머물러 있다가 분석기간 후반에 비취업상태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나 ‘상용직퇴직형’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 8집단은 10.4%의 중고령자가 속한 집단으로 분석기간 내내 상용직 상태를 지속하는 경로를 보여주어 ‘상용직유지형’이라고 명명하였다.

중고령층 노동이동 유형별 개인 및 가구 특성의 두드러진 차이를 살펴보면, 성별은 노동시

장이탈형, 후기자영진입형, 임시일용퇴직형에서 여성 비중이 높게 나타난 반면, 나머지 유형들은 모두 남성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도 상용직유지형에서 남성 비율이 80.6%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출생코호트의 비중은 임시일용퇴직형에서 1940년대 코호트의 비중이 다른 유형들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이 눈에 띈다. 학력은 상용직퇴직형과 상용직유지형의 대졸 이상 비중이 다른 유형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혼인상태는 지속자영자형과 임시일용퇴직형에서 별거/이혼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적이다. 마지막으로 건강상태 역시 유형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데, 노동시장이탈형과 후기자영진입형의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가 매우 좋거나 좋다고 응답한 비율이 70% 수준인 반면, 상용직퇴직형과 상용직유지형의 경우 9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중고령층의 노동이동 유형에 따른 건강수준의 격차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 중고령자 노동이동 유형별 특성

(단위 : %, 세, 명)

		노동이동 유형							
		①노동 시장 이탈형	②후기 자영 진입형	③자영 전환형	④지속 자영자형	⑤상용 전환형	⑥임시 일용 퇴직형	⑦상용직 퇴직형	⑧상용직 유지형
성별	남성	13.1	14.1	62.0	58.9	54.6	32.3	62.8	80.6
	여성	87.0	85.9	38.0	41.1	45.4	67.7	37.2	19.4
가구주 여부		21.8	21.2	75.0	69.3	63.2	46.0	68.4	84.9
출생 코호트	1940년대	16.4	19.3	24.5	19.9	22.3	28.1	16.2	18.9
	1950년대	83.6	80.8	75.5	80.1	77.7	71.9	83.8	81.1
연령		54.8	54.9	55.0	54.8	54.8	55.3	54.6	54.7
학력	고졸 이하	70.6	54.8	48.1	64.2	55.8	62.8	39.0	38.6
	2~3년제 대학	23.6	35.4	36.6	27.8	32.1	26.8	34.9	33.5
	4년제 대학	5.9	9.8	15.3	8.0	12.1	10.5	26.2	27.9
혼인 상태	기혼 유배우	87.7	91.1	83.9	83.1	86.7	81.1	91.3	88.7
	별거/이혼	4.9	5.8	5.0	7.8	4.5	7.5	2.8	4.1
	사별	6.1	3.1	11.1	7.9	8.8	9.0	4.6	5.8
	미혼	1.3	0.0	0.0	1.2	0.0	2.4	1.3	1.4
가구원 수		3.3	3.3	3.4	3.4	3.4	3.3	3.6	3.4
건강 상태	좋음	32.5	31.2	49.3	44.2	48.4	36.3	54.9	62.1
	보통	38.3	38.1	36.9	39.4	41.1	38.3	35.5	32.8
	나쁨	29.2	30.7	13.8	16.5	10.4	25.5	9.6	5.0
Obs		2,798 (12.5)	909 (4.1)	1,945 (8.7)	9,684 (43.1)	1,430 (6.4)	2,284 (10.2)	1,067 (4.8)	2,346 (10.4)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1~19차 조사 원자료.

다음으로 집단중심추세모형의 결과를 토대로 어떤 요인들이 중고령자의 노동이동 과정을 상이하게 만드는지 다항프로빗 분석(multinomial probit analysis)으로 확인하였다.

다항프로빗 분석에서 종속변수는 8개 집단의 노동이동 유형이며, 이 중에서 준거집단은 가장 안정적인 노동이동 유형인 8집단 ‘상용직유지형’으로 설정하였다. 분석모형에는 인구학적 변인과 경제적 특성을 중심으로 성별, 가구주 여부, 출생코호트, 학력, 혼인상태, 가구원 수, 그리고 건강상태가 통제되었다.

<표 3>의 다항프로빗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중고령층의 노동이동 유형에 유의하게 영향을

<표 3> 중고령자 노동이동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추정계수						
	①노동시장 이탈형	②후기 자영업진입형	③자영업 전환형	④지속 자영업자형	⑤상용 전환형	⑥임시일용 퇴직형	⑦상용직 퇴직형
남성	0.999*** (0.337)	1.292*** (0.443)	0.918*** (0.350)	0.386 (0.291)	0.629* (0.349)	0.884*** (0.334)	0.615 (0.413)
가구주 여부	-1.049*** (0.357)	-0.596 (0.440)	0.501 (0.369)	0.031 (0.310)	-0.090 (0.372)	-0.410 (0.352)	-0.071 (0.427)
1950년대 출생	0.129 (0.198)	-0.067 (0.238)	-0.198 (0.187)	0.018 (0.161)	-0.135 (0.199)	-0.352* (0.185)	0.081 (0.219)
2~3년제 대학	-0.073 (0.181)	0.342 (0.217)	0.012 (0.180)	-0.330** (0.151)	-0.096 (0.185)	-0.032 (0.180)	0.126 (0.203)
4년제 대학	-0.582** (0.248)	-0.068 (0.304)	-0.383* (0.226)	-1.003*** (0.190)	-0.497** (0.240)	-0.390* (0.229)	0.074 (0.238)
기혼 유배우	-0.167 (0.283)	0.309 (0.398)	0.284 (0.286)	-0.062 (0.226)	0.068 (0.275)	-0.173 (0.275)	0.217 (0.346)
가구원 수	-0.029 (0.055)	-0.054 (0.064)	0.003 (0.054)	0.027 (0.047)	0.076 (0.058)	0.022 (0.056)	0.087 (0.058)
건강(좋은)	-0.970*** (0.132)	-1.034*** (0.154)	-0.444*** (0.132)	-0.448*** (0.116)	-0.244* (0.135)	-0.807*** (0.127)	-0.362** (0.151)
건강(보통)	-1.280*** (0.151)	-1.417*** (0.174)	-0.585*** (0.148)	-0.660*** (0.128)	-0.441*** (0.146)	-1.078*** (0.143)	-0.478*** (0.169)
상수	0.234 (0.965)	-1.035 (1.320)	-0.965 (1.011)	1.158 (0.817)	-0.726 (1.013)	0.717 (0.956)	-1.581 (1.140)
Obs	17,310						

주: 1)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2) 설명변수에 지역 더미가 포함되어 있으나, 표에서는 생략하였음.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1~19차 조사 원자료.

미치는 변수들은 성별, 학력, 건강상태 등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여성에 비해 남성일 경우 ‘상용직유지형’에 속하기보다는 ‘노동시장이탈형’, ‘후기자영진입형’, ‘자영전환형’, ‘상용전환형’, 또는 ‘임시일용퇴직형’에 속할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성별은 ‘지속자영자형’ 및 ‘상용직퇴직형’에의 소속정도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교육효과를 살펴보면, 4년제 대학 졸업자의 경우 준거집단인 고졸 이하 집단에 비해 ‘상용직유지형’보다는 ‘노동시장이탈형’, ‘자영전환형’, ‘지속자영자형’, ‘상용전환형’, 또는 ‘임시일용퇴직형’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건강의 효과를 살펴보면, 모든 유형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발견되어 주관적 건강상태가 ‘ 좋음’ 또는 ‘보통’인 경우 ‘나쁨’에 비해 ‘상용직유지형’보다 다른 노동이동 유형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중고령 시기에 상용직에 오래 남아있을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구주 여부의 효과를 살펴보면, 1집단 소속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구주인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상용직유지형’보다 ‘노동시장이탈형’에 속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 Ⅲ. 중고령층 자영업 이행과 소득

#### 1. 중고령층 노동이동 유형별 소득 및 지출

<표 4>는 중고령층의 노동이동 유형별 총 가구소득과 항목별 소득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균등화가구소득을 살펴보면, 상용직지속형 및 상용직퇴직형의 가구소득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상용전환형이 그 뒤를 이었고 중고령층 자영업 종사자에 속하는 지속자영자형과 자영전환형의 소득은 상용직 임금근로자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중고령층의 자산 현황을 노동이동 유형별로 살펴보면, 금융자산과 소유부동산 시가총액의 합이 상용직지속형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후기자영진입형과 노동시장이탈형이 그 뒤를 이었다. 부채의 경우 금융기관부채는 노동시장이탈형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속자영자형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전세금 및 임대보증금은 상용직유지형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는 중고령층 노동이동 유형별 소비지출을 항목별로 제시하고 있는데 소득과 마찬가지로

〈표 4〉 중고령자 노동이동 유형별 소득구성

(단위 : 만 원)

	노동이동 유형							
	①노동시장 이탈형	②후기자영진입형	③자영 전환형	④지속 자영자형	⑤상용 전환형	⑥임시일용 퇴직형	⑦상용직 퇴직형	⑧상용직 유지형
소득								
총 가구소득	3,863.1	3,748.3	4,319.1	3,948.2	4,038.2	3,535.9	5,354.8	5,304.8
균등화 가구소득	2,342.2	2,203.4	2,544.7	2,355.5	2,402.9	2,117.0	3,064.0	3,158.0
근로소득	3,106.1	3,215.7	4,005.4	3,720.0	3,853.7	3,029.4	5,018.8	5,093.4
금융소득	63.1	59.0	37.1	42.2	36.3	54.5	75.2	145.1
부동산소득	503.5	345.1	207.6	264.6	201.7	266.4	186.3	205.2
사회보험수혜금	260.8	202.1	228.3	80.2	116.2	289.0	384.6	159.9
이전소득	173.8	151.6	83.7	96.1	75.5	143.9	83.4	74.9
기타소득	117.4	210.8	172.0	91.6	150.6	104.3	263.2	246.5
자산								
금융자산	2,639.6	2,556.5	2,274.2	2,259.7	2,141.5	2,387.6	3,591.7	4,976.8
부동산	5,507.3	5,946.8	4,341.1	4,475.0	3,625.7	4,287.0	4,298.0	6,012.0
부채								
금융기관부채	4,608.1	3,143.4	2,693.3	3,672.1	2,692.6	2,355.2	2,458.0	3,049.0
비금융기관부채	45.6	35.9	72.0	35.2	26.7	29.5	80.7	51.2
전세금임대보증금	1,702.8	1,601.9	1,582.4	1,339.2	1,214.4	925.0	1,177.4	2,131.3

주 : 실질소득 기준(2015년 기준)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1~19차 조사 원자료.

지로 월평균 생활비도 상용직유지형과 상용직퇴직형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임시일용 퇴직형이 생활비 지출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비 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식비, 용돈, 그리고 교육비인데 교육비 항목의 경우 가장 높은 상용직유지형(34.9만원)이 가장 낮은 임시일용퇴직형(17.6만원)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표 6>에서 중고령층의 노동이동 유형별 월평균 소득과 지출의 차이를 살펴보면, 소득에서 지출을 제외한 부분의 크기는 상용직퇴직형과 상용직유지형이 가장 높고 임시일용 퇴직형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자영업 종사자 집단인 후기자영진입형과 자영전환형, 지속자영자형은 상용직 임금근로자 집단에 비해 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이 월평균 50만 원 이상 낮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동시장이탈형을 비교집단으로 두고 각 집단의 소득과 지출의 격차를 살펴보면, 후기자영진입형과 임시일용퇴직형이 노동시장이탈형보다 소득과 지출이 더 낮은 것



〈표 5〉 중고령자 노동이동 유형별 지출구성

(단위 : 만 원)

	노동이동 유형							
	①노동 시장 이탈형	②후기 자영 진입형	③자영 전환형	④지속 자영자형	⑤상용 전환형	⑥임시 일용 퇴직형	⑦상용직 퇴직형	⑧상용직 유지형
지출								
월평균 생활비	222.2	220.3	241.1	225.0	235.0	208.1	283.6	285.5
식비	49.6	47.9	52.4	47.9	49.5	47.4	58.5	58.4
교육비	18.7	20.0	26.8	25.1	26.1	17.6	30.2	34.9
차량유지비	21.6	19.3	20.9	21.0	21.0	18.7	27.1	24.0
주거비	20.7	21.9	19.8	20.1	19.8	19.4	21.6	20.8
경조사비	10.7	10.4	10.5	10.0	10.0	9.5	12.7	12.7
보건의료비	8.7	9.1	7.1	7.5	6.3	7.7	8.7	7.8
문화비	6.8	5.4	6.3	6.1	5.6	5.9	8.4	9.7
내구재	2.7	2.8	2.7	2.6	2.4	2.1	3.1	3.6
통신비	14.4	14.8	16.5	15.0	16.9	14.1	17.8	17.3
용돈	31.4	33.0	37.4	33.4	36.9	30.9	45.5	45.4
피복비	6.9	7.6	8.1	6.9	7.6	6.6	10.0	9.7
현금·각종기부금	4.7	6.0	3.8	3.3	4.5	4.4	5.6	7.1
국민연금·의료보험비	11.2	10.4	13.2	12.3	13.9	10.0	17.0	18.1
대중교통비	5.8	6.2	7.4	6.5	8.4	6.2	8.1	7.9
생필품구입비	5.6	4.9	5.2	5.4	5.8	5.5	6.6	5.8
기타	2.9	2.4	2.8	2.8	2.6	2.4	4.4	3.8

주 : 실질소득 기준(2015년 기준).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1~19차 조사 원자료.

〈표 6〉 중고령자 노동이동 유형별 월평균 소득과 지출 격차

(단위 : 천 원)

	평균소득(A)	평균지출(B)	차(C=A-B)	1집단 대비	
				소득차	지출차
①노동시장이탈형	3,552	2,222	1,330	-	-
②후기자영진입형	3,405	2,203	1,202	-147	-19
③자영전환형	3,885	2,411	1,474	333	189
④지속자영자형	3,587	2,250	1,337	35	28
⑤상용전환형	3,668	2,350	1,318	116	128
⑥임시일용퇴직형	3,223	2,081	1,142	-329	-141
⑦상용직퇴직형	4,854	2,836	2,018	1,302	614
⑧상용직유지형	4,801	2,855	1,946	1,249	633

주 : 실질소득 기준(2015년 기준).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1~19차 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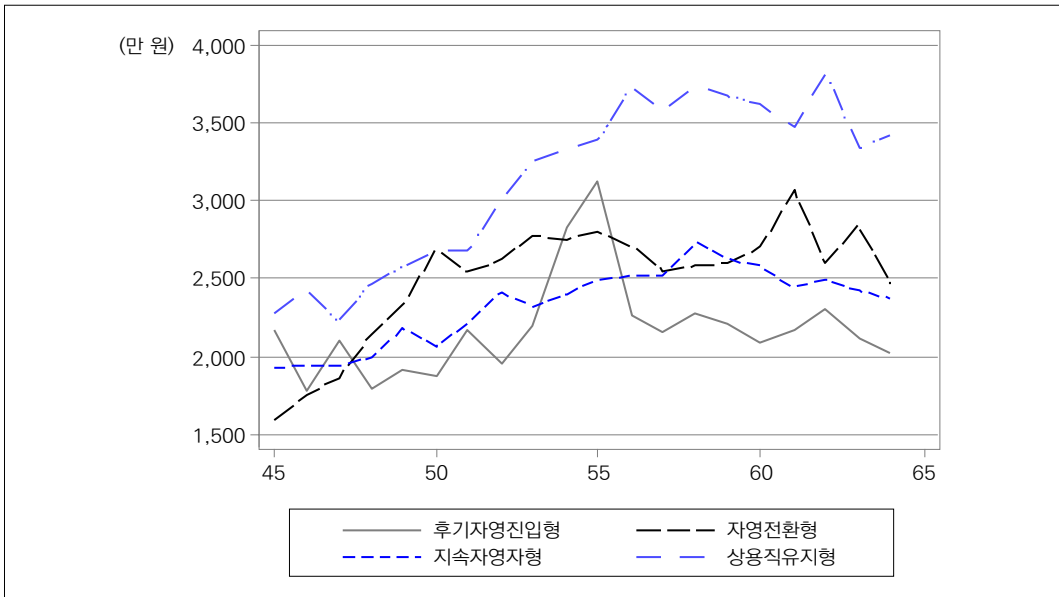
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유형별 지출격차는 소득격차에 비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2. 중고령층 자영업 선택이 소득과 지출에 미치는 영향

또 한 가지 이 글에서 관심을 가진 것은 중고령층에서 자영업을 선택한 것이 소득 및 지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이다. 앞서 중고령층의 노동이동 유형화 결과 중고령 시기 자영업에 종사하는 집단은 후기자영진입형, 자영전환형, 지속자영자형 등 세 그룹으로 나타났다. 많은 선행연구들이 임금근로자 가구와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격차를 지적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여기서는 상용직유지형을 준거집단으로 설정하여 자영업 집단과 소득 및 지출 수준을 비교하였다.

분석에 앞서 노동이동 유형별 연령-소득 곡선을 먼저 살펴보자. [그림 2]는 후기자영진입형, 자영전환형, 지속자영자형, 그리고 상용직유지형의 연령에 따른 소득을 나타내고 있는데, 상용직유지형은 네 그룹 가운데 소득이 가장 높고, 근속년수가 증가함에 따라 60대 초반까지 소득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 다음으로 소득이 높은 집단은 상용직에서 자영업으로 진입한 자영전환형이며, 지속자영자형의 소득은 자영전환형보다 조금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취업상태에서 자영업에 진입한 후기자영진입형은 네 그룹 가운데 가장 소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중고령자 노동이동 유형별 연령-소득 곡선



주: 균등화가구소득을 제시한 것임.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1~19차 조사 원자료.

다음으로 중고령층의 자영업 선택이 소득과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에 이용한 소득함수는 다음의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ln W_{it} = \beta_0 + \beta_1 Group_i + X_{it}\gamma + T_t + \omega_i + u_{it}$$

여기서  $\ln W$ 는 로그 균등화소득,  $Group_i$ 는 종사상 지위 또는 노동이동 유형,  $X$ 는 그 외에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특성들로 출생코호트, 가구주 여부, 학력, 배우자 유무, 건강상태, 지역을 포함하며,  $T$ 는 연도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이다. 또한  $\omega$ 와  $u$ 는 각각 관찰 불가능한 개

〈표 7〉 중고령층 자영업 선택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 : 균등화 가구소득

		(1)	(2)	(3)
경제활동 변화 유형	후기자영업진입형	-0.471 *** (0.087)	-0.336 *** (0.080)	-0.248 *** (0.080)
	자영업전환형	-0.224 *** (0.055)	-0.131 *** (0.050)	-0.105 ** (0.051)
	지속자영업자형	-0.363 *** (0.044)	-0.193 *** (0.039)	-0.150 *** (0.041)
성별	남성		0.065 (0.065)	0.152 ** (0.072)
가구주 여부			0.037 (0.070)	-0.009 (0.100)
출생코호트	1950년대		0.051	0.046 (0.037)
학력	2~3년제 대학		0.239 *** (0.033)	0.281 (0.179)
	4년제 대학		0.544 *** (0.051)	0.241 (0.215)
혼인 상태	기혼 유배우		0.312 *** (0.053)	0.018 (0.073)
건강 상태	보통		0.210 *** (0.029)	0.099 *** (0.023)
	좋음		0.353 *** (0.033)	0.128 *** (0.026)
상수		7.879 *** (0.039)	6.799 *** (0.187)	6.382 *** (0.213)
Obs		13,676	10,402	10,402

주: 1)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2) 모형 (2)와 (3)에는 설명변수에 지역 및 조사년도 더미가 포함되어 있으나, 표에서는 생략하였음.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1~19차 조사 원자료.

별특성(individual-specific effect)과 오차항을 의미한다.

위 모형을 분석함에 있어 관측된 변수들과 비관측된 변수들 간의 잠재적인 상관성을 통제하기 위해 Chamberlain(1984)이 제시한 상관된 임의효과(Correlated Random Effect) 모형을 사용하였는데, 이 모형은 임의효과 모형에 시간에 따라 변하는 설명변수들의 평균값을 별도의 설명변수로 포함시킴으로써 비관측된 개별효과  $\omega_i$ 와 연관된 내생성을 통제하는 방법이다.

다음의 <표 7>과 <표 8>은 중고령층의 자영업 선택이 소득 및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중고령층 노동이동 유형 중 후기자영진입형, 자영전환형, 지속자영자형

<표 8> 중고령층 자영업 선택이 생활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1)	(2)	(3)
경제활동 변화 유형	후기자영진입자형	-0.302*** (0.078)	-0.157*** (0.060)	-0.100* (0.059)
	자영전환형	-0.167*** (0.052)	-0.071* (0.037)	-0.056 (0.037)
	지속자영자형	-0.264*** (0.042)	-0.095*** (0.029)	-0.069** (0.031)
성별	남성		-0.028 (0.046)	0.035 (0.051)
가구주 여부			-0.016 (0.049)	-0.055 (0.060)
출생코호트	1950년대		0.093*** (0.027)	0.101*** (0.026)
학력	2~3년제 대학		0.211*** (0.024)	0.162* (0.085)
	4년제 대학		0.521*** (0.039)	0.243** (0.105)
혼인상태	기혼 유배우		0.241*** (0.039)	0.053 (0.049)
건강상태	보통		0.206*** (0.010)	0.173*** (0.008)
	좋음		0.098*** (0.019)	0.031** (0.013)
상수			0.181*** (0.022)	0.035*** (0.014)
Obs		5.519***	4.140***	3.829***

주 : 1)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2) 모형 (2)와 (3)에는 설명변수에 지역 및 조사년도 더미가 포함되어 있으나, 표에서는 생략하였음.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1~19차 조사 원자료.

에 속하는 것이 상용직유지형에 비해 소득, 지출, 직업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것이다. 추정결과의 해석은 세 번째 열에 제시된 상관된 임의효과 모형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우선, 가구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인구·경제학적 특성이 동일할 때 상용직유지형에 비해 후기자영진입형의 가구소득은 약 25% 낮고 자영전환형은 10.5%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자영자형은 약 15% 낮게 나타났다.

한편 월평균 생활비 지출에 대한 영향은 소득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다소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후기자영진입형의 경우 상용직유지형보다 생활비 지출이 10%가량 낮게 나타났으며 지속자영자형은 7%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전환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 IV. 결론 및 요약

이 글에서는 중고령층의 노동이동 과정을 유형화하고 개인이 각 유형에 속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중고령층 자영업종사자의 소득 및 생활 수준을 노동이동 유형별 비교를 통해 살펴보고, 자영업과 관련된 노동이동 유형에 속하는 것이 소득 및 지출, 그리고 일자리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연구의 목적에 따라 45세에서 65세까지의 중고령층으로 한정하였으며, 분석자료로는 한국노동패널(KLIPS) 1~19차(1998~2016년 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집단중심추세분석을 활용하여 중고령층의 노동시장 이동궤적을 추정하고 유형화한 결과, 중고령층의 노동이동 유형은 ① 노동시장이탈형(12.2%) ② 후기자영진입형(4.3%) ③ 자영전환형(8.9%) ④ 지속자영자형(41.9%) ⑤ 상용전환형(6.9%) ⑥ 임시일용퇴직형(10.4%) ⑦ 상용직퇴직형(5.0%) ⑧ 상용직유지형(10.4%) 등 8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이 특정 유형에 속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성별, 학력, 건강상태 등이 중고령층의 노동이동 유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중고령층 노동이동 유형별 소득 및 소비지출 수준을 비교한 결과, 자영업에 속하는 집단인 후기자영진입형, 자영전환형, 지속자영자형의 소득이 상용직 임금근로자에 해당하는 상용직유지형과 상용직퇴직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지출 역시 격차가 발견되었으나 격차의 크기는 소득격차보다 완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임시일용퇴직형의 경우 소득과 지출 모두 전체 8개 노동이동 유형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이들이 중고령층에서 가장 낮은 경제적 지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중고령층 자영업 선택이 소득과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개인이 후기자영 진입형, 자영전환형, 지속자영자형에 속하는 것은 상용직유지형과 비교하여 소득과 지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이들 집단에 속하는 것이 상용직유지형에 속하는 경우보다 소득은 약 10~25%, 지출은 약 5~10%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장의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중고령 시기에 노동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노동이동의 과정은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중고령층에서 자영업을 지속하거나 임금근로자에서 자영업으로 진입한 경우 소득 및 소비지출 수준은 상용직 임금근로를 지속하거나 상용직에서 퇴직한 경우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중고령층 자영업자의 수익성을 증대시키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KLI**

### [참고문헌]

- 김재희(2017), 「청년 장애인의 경제활동참여 변화유형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9(4), pp.127~152.
- 반정호(2012), 「자영자 가구의 소득변동과 빈곤에 관한 연구」, 『노동정책연구』 12(1), pp.29~56.
- 성지미·안주엽(2004), 「자영업과 가교일자리」, 『노동경제논집』 27(2), pp.1~27.
- 이승렬·손연정(2018), 「중고령층 노동이동과 자영업 소득」, 『중고령 자영업자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지은정(2012), 「자영업 근로소득의 불평등 요인과 변화」, 『한국사회복지학』 64(2), pp.55~83.
- 최석현·김재신(2018), 「50·60세대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이슈&진단』 312, pp.1~25.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1~19차 조사 원자료.
- Chamberlain, Gary(1984), “Panel data,” *Handbook of econometrics* 2, pp.1247~1318.
- Nagin, Daniel S.(1999), “Analyzing developmental trajectories: a semiparametric, group-based approach,” *Psychological methods* 4(2), p.139.